

아폴로 박사

조경철 박사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 늦은 오후. 여의도에 위치한 조경철 박사 사무실을 찾았다. 언제나 그렇듯 큰 웃음소리로 기자를 맞는다.

조 박사의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책상 뒤로 보이는 커다란 그림이다. 사무실 여기 저기에는 걸지 못한 캔버스와 액자들이 널려있다. 모두 조 박사가 직접 그린 작품들이다. 조경철 박사는 천문학자이지만 그림에도 수준급의 실력을 갖고 있는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이 쌓여있는 자동차 관련 잡지들이다. 조 박사는 자동차 리뷰어로도 유명하다.

“이번 3월 29일에 있을 개기일식 보시러 터키에 가신다면서요?”

“오래 전부터 개기일식이 있다면 세계 어디든 찾아다녔지. 잠깐만 그 동안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좀 보여줄까?”

조 박사는 책상에서 커다란 상자를 갖고 온다. 그 안에는 그 동안 촬영한 일식 사진과 필름으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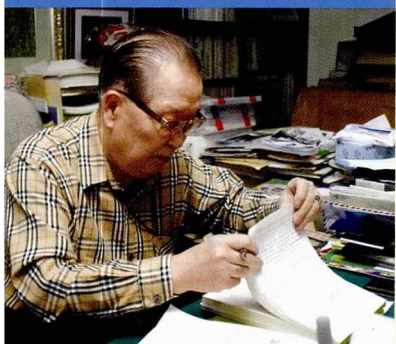
“아마 처음은 태국이었을 거야. 이후 몽고, 터키, 호주 등 개기일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 다녔지. 지금까지 다니면서 날씨가 맑아 못 본 적은 거의 없었어. 그런데 2002년 호주 개기일식 때는 날씨가 흐렸지. 그래서 비행기를 빌렸어.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보는 개기일식은 땅 위에서는 보는 것과는 다른, 정말 대단한 장관이었지”

“저는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개기일식을 찾아다니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과학적인 목적을 두고 갔었어. 시시각각 일어나는 과정을 기록하려고 많이 신경을 썼지. 그러다 보니 정작 개기일식의 그 장엄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 그래서 연구 일선에서 물러나고 나서는 그냥 동경으로 우주를 바라다보는 순수한 마음으로 개기일식을 감상만 해. 그래도 여전히 천문학자라는 명함은 어쩔 수 없나 봐. 매 번 찾아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천문학자로서의 의무감 때문인지도 몰라.”



>>개기일식 사진을 보여주며 얘기보따리를 펼쳐 놓는 조경철 박사.



>>은퇴 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조경철 박사는 최첨단을 자랑하는 NASA의 전직 연구원이지만 글만큼은 여전히 원고지를 애용하고 있다.

위대한 화가에서 위대한 천문학자로

일제침략기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조경철 박사에게 별은 관심 밖 일이었다. 당시 국민학교(현재의 초등학교) 시절 꿈은 '위대한 화가'였다. 미술전에서 특선을 받기도 했으니 지금의 그림 실력은 타고난 것이었다. 중학교 가서는 서양 음악을 처음 접하고 '위대한 음악가'로 꿈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 꿈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책읽기를 즐겼던 그의 꿈은 '위대한 철학자'로 방향을 바꾸었다.

얼마 안가 해방을 맞으며 그의 꿈은 또 한번 변화를 겪는다.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북한이 고향인 조 박사는 해방 이후 설립된 김일성 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나 당시 학교 교육 내용과 사회 분위기는 새로운 학문을 갈구하던 그를 남쪽으로 이끌었다. 1947년에 맨발로 가족도, 돈도 아무 것도 없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홀홀 단신 월남한 그의 남한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책을 손에서 놓지는 않았고, 어느 날 책방에서 그의 운명을 바꾼 한 권의 책을 발견한다. 바로 팽창 우주를 발견한 에드윈 허블이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광활하고 신비한 우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연희전문대학(현 연세대학교)이었다. 당시 연희전문대학에는 천문학으로 국내 이학박사 1호가 된 이원철 박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원철 박사와의 짧은 만남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조경철 박사는 한국전쟁을 지나 50년대 격동기를 거치며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잠시 가졌던 천문학자의 꿈을 '위대한 정치가'로 바꾸게 된다. 그런 중에 미국으로 유학갈 기회를 얻게 되고 그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정치학과로 편입한다. 이때 운명의 편지 한 통이 그의 손에 전달된다.

운명을 바꾼 편지 한 통

손에 들려진 편지 겉봉에는 이원철 박사의 이름이 보였다. 그 편지에는 학문적 외도를 그만하고 국비

유학생으로 지정할 테니 천문학을 공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연희전문대학을 떠난 지 8년이 지난 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뜻하지 않은 편지를 받은 조 박사는 이때부터 '위대한 천문학자'로의 길을 확정지게 된다. 천문학 박사를 이수한 후 미항공우주국(NASA)에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후 연세대와 경희대 교수를 거치며 많은 후학들을 키워왔다.

일반인들에게 조 박사는 아폴로 박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69년 아폴로 11호 발사를 맞아 전세계로 위성 생방송 되는 영어 방송을 통역하고 설명해 줄 사람이 거의 없던 당시 미국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온 조 박사는 최상의 적임자였다. 이후 조 박사는 스타 박사가 되었고, 이러한 방송 활동을 천문학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나름대로는 천문학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천문학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 그런데 요즘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아이들은 공부와 컴퓨터에 매달려 꿈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우주를 보고 '아!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것은 사람밖에 없거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이 소중한게 여겨지는 현실에서 이제는 조금 눈을 돌려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천문학자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조경철 박사와의 인터뷰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 편을 듣는 것 같았다. 일선에서 은퇴는 했지만 호쾌한 웃음을 터뜨리는 노 박사의 안경 너머로는 여전히 별을 동경하고 꿈꾸는 '위대한 천문학자'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